



아빠의 솜씨



신문지 고깔모자, 정말 오랫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따가운 모양이죠. 그런데 아빠와 아이들, 창문에 걸터 구경하고 있는 것은 고싸움들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들이 전수판에서 열린 고싸움 시연회를 찾았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신문지로 접어 만든 모자를 아빠와 이를, 팔이 모두 쓰고 있는데 정겹게 느껴지더군요.

처음 집을 나설 때부터 고깔 모자를 쓴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 칠석 고싸움들이 시연회 소식을 듣고 교육삼아 찾아와 자리를 잡았는데 반사되는 햇빛이 여간 거슬렸던 것 같습

니다. '아빠, 눈을 뜯 뜨여'하는 아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두리번거리다 눈에 뛴 신문지를 보고 순간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종이 접기를 하더니 순식간에 고깔 모자를 만들어 두 자녀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네요.

신기한 듯 만지던 아이들, 고싸움보다 고깔모자에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술 더 떠, 비행기,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다 들어주는게 아버지의 자식 사랑 아닙니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모자 보신 분

어느 병원에 환자 세명이 한 병실을 쓰고 있었다. 하루는 환자 한명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러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무룩하게 있던 한 환자가 말했다.

"그렇게 좋아할 것 없습니다. 저는 수술용 칼을 넣고 꿰매서 배를 깨고 다시 꿰맸습니다."

수술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환자가 깜짝 놀라자 다른 한 환자가 그들을 비웃듯이 한마디 했다.

"저는 장갑을 넣고 꿰매서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의사가 머리를 빼~꼼 내밀며 모기 소리로 말했다.

"혹시! 제 모자 보신 분 없습니까?"

▲울긴~!

아들의 뭉친 짓거리에 골치를 앓던 아버지가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았으나 아들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하다하다 못해 하루는 아들을 불들고, "애야, 어쩌자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느냐." 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울긴."

▲남편의 유형

-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취해 들어왔을 때

1. 애처가
'으이구, 마시지도 못하면서 웬 술이야!'하며 등 두들겨 주고 끌풀 타 준다.
2. 간 남편
'가지가지 하는군!'하며 현관문 잠근다
3. 업기남편
아내 거꾸로 들어 술 깔때까지 흔든다

- 오랜만에 시댁에 가려는데 아내가 싫다고 할 때

1. 애처가

'자기 많이 힘들구나'라고 말하면서 일단 부인의 마음을 이해한 뒤 설득한다.

그래도 아내가 싫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가지 뭐!'라고 말한다.

2. 간 남편

'지금 나랑 호적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지?'라며 독기 품고 아내 노려본다.

3. 업기남편

아내 커피에 몰래 수면제 넣어 먹인 뒤 잠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시액에 데려다가 놓는다.

- 어느 화장한 일요일 아내가 외출을 할 때

1. 애처가

'자기야~ 난 자기가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니깐 빨랑 와!'라며 현관에서 가볍게 키스한다.

2. 간 남편

'어데 가는데?'라고 묻는다.

3. 업기남편

최고의 사립정정을 고용해 아내 뒤를 미행 한 다음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당장에 집으로 끌고 들어온다.

▲알미운 여자

20대 :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30대 : 결혼 전에 별 짓 다하고 돌아다녔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40대 : 골프에 해외여행에 놀러온다녔어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

50대 : 먹어도 먹어도 살 안찌는 여자.

60대 : 건강 복도 타고 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여자.

70대 : 자식들 시집장가 잘하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남자의 대답 VS 여자의 대답

여자	질문	남자
차는 있어?	미팅할래?	예쁘?
맨날 싸우겠다	여동생 있어?	예쁘나?
그래? 잘됐네	나 여자친구 생겼어	예쁘나?
흔자 나이트 갔냥?	어제 나이트에서 부킹했는데~	예쁘나?

92. '13월의 보너스'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골프 접대비 ②보험료 ③신용카드 ④교육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등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0월 25일 壬申)

子 36년생 일은 서두르나 결과는 없다. 48년생 자선을 베풀리. 60년생 상선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72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점을 찾으라. 84년생 큰 소비가 생길 수 있다.

丑 37년생 남의 뛰어 커 보이니 육심을 버려라. 49년생 온고지신 모든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길사가 있으리라. 61년생 안과계의 검진을 해보라. 73년생 상대방을 인정하면 평화롭다. 85년생 서두르면 실패한다.

寅 38년생 쌍아놓은 꿈부를 버려라.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 60년생 춘정을 단단히 하라. 철철 산종이다. 62년생 구설수로 사연조가니 언행을 삼아 하라. 74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삼사일을 알아야 한다.

卯 39년생 하는 일이 불안하다 속사정을 살펴보라. 51년생 온고지신 모두 많은 이유로 예정은 새롭다. 75년생 가족의 경기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辰 40년생 韋次發行 耘이니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빚이 없다. 52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있다. 64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청찬이 없다. 76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이사람의 인정이 있으리라.

巳 41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빛이 없다. 53년생 성급한 결정은 메수가 헛일이니 결정은 내일로 미루라. 65년생 청장을 아끼지 마라 부하가 무심하다. 77년생 진퇴양난이지만 물파구는 보인다.

午 42년생 상황은 어려워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인다. 54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피하라. 66년생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 진다. 78년생 외출을 삼아 하면 소화도 막는다.

행운의 숫자 : 23, 43
未 43년생 자식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긴다. 55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득체 하리라. 67년생 위장이 괴로우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79년생 가족의 변동이 예상되나 북쪽은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申 44년생 지나가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56년생 하루 종일 바쁜 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68년생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라 좋은 일은 생겼구나. 80년생 고자질하는 부하가 보이니 사전에 단속하면 구설수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2, 30
酉 45년생 재물을 형제와 누나로 보라 기쁨은 배가 된다. 57년생 자신의 큰 존망을 살펴보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파헤치기 말라. 69년생 생강과 재물이 한꺼번에 위험하다. 81년생 촌을 아끼 써도록 하루해가 짧다.

행운의 숫자 : 08, 37
戌 46년생 누이 좋고 배우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 58년생 금수수를 풀어가라. 7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나 연행을 조심하면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 82년생 돈은 생기나 쓸 구멍이 더 많다.

행운의 숫자 : 10, 42
亥 47년생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마음은 아쉽다. 59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시기다. 71년생 꽁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83년생 주변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 결과는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06, 2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47>

How many suitcases do you have?

가방이 몇 개나 되세요?

A : How many suitcases do you have?

B : I have two suitcases.

A : Can you please them on the scale, please?

B : Sure. I have one handbag that I am going to carry on the plane.

A : Sure, no problem.

A : 가방이 몇 개나 되세요?

B : 두 개입니다.

A : 그것을 저울에 올려 놔 주시겠습니까?

B : 그러죠. 기내로 가져갈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A : 괜찮습니다.

* carry : 휴대하다, 가져가다

* scale : 저울

*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 Have a nice trip.

* boarding pass : 탑승권

* boarding gate : 탑승구

오하요우 니혼고 <1047>

どういう場合に使(つか)いますか?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A : '繩(どろなわ)'って, どういう場合に使(つか)いますか。

B : 그렇습니다. この前, 北朝鮮の工作船(こうさくせん)に自衛隊(じえいたい)の船(ふね)が追(お)い付(つけ)なかつた事件がありましたよね。

A : 아,その後高速ミサイル艇(てい)을導入(どうにゅう)하는ことが決(き)まった話ですね。

B :だから、そんなふうに事が起(お)こってから、後(あと)で用意(ようい)をすることです。

A : '도로나와'라니,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B : 글쎄요. 일전에 북한의 공작선을 자위대 배가 따라잡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죠?

A : 아, 그 뒤 고속미사일선을 도입하는 일이 결정된 이야기 말이죠.

B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工作船(こうさくせん) : 공작선

니하오 쟁구워 <24>

難不難?

어렵니?

A: 汉语难不难?

Hán yǔ nán hū nán?

한국어 어렵지 않아?

B: 不太难。

Bù tài nán,

한국어 어렵지 않아.

A: 汉语好学吗?

Hán yǔ hào xué ma?

한국어 어렵지 않아?

B: 汉语好学。

Hán yǔ hào xué.

한국어 어렵지 않아.

A: 难度어 어렵니?

Nán dù er āi píng?

난도 어려워요.

A: 难度어 배우기 쉽니?

Nán dù er bài wu ji?